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국가기관 일원화”

정동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
아특별 시효기간 연장·아특별회 예산 확대 관계기관과 협조

대통령 소속 제 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정동채 위원장은 “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해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성위 향후 운영방향과 조성사업 비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원화 체제를 급히 개선해 소모적 논쟁을 반드시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은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은 당초 지난 4월 13일까지였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 성과 평가를 거쳐 아시아문화원에 일부 위탁하고 있는 방식을

전부 위탁으로 변경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성위의 국가기관 일원화 추진은 향후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차체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인력의 참여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위원장은 현안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아특별 시효기간 연장과 아특별회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른 무엇보다 5대 문화권 사업에 조성위 역량을 집중해 당초 취지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사업 가속화와 기간 단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참여정



정동채 위원장

부 시절 국책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축소돼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5대 문화권 연계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과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분야는 최근 3년 국비 반영률이 45%대로 저조하다.

다행히 이번 8기 조성위원 가운데는 지역과 연고가 있거나 작·간접적으로 조성사업에 관여했던 이들이 적지 않아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정 위원장 또한 장관 시절 조성사업 청사진을 설계한 바 있으며, 조성지원포럼 위원장을 역임했던 터라 조성사업 현안에 밝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도 중요 과제다. 후세대에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원은 물론 콘텐츠를 충실히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정 위원장은 “5·18민주화 정신이 깃든 도청 복원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향후 민주·평화·인권 정신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위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 등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광주시, 문화전당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입주기억 지원 펀드 등 투자진흥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 전 설명회는 시기상조”

전남도, 광주시·국방부 군공항 이전 전남설명회 부정적

전남도가 9월 중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 지역 설명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전 대상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개최하는 설명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명칭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어’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군 공항 이전 설명회 개최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중전부지(현 군 공항) 개발

로 얻어질 것으로 추산되는 약 4000억원의 범위에서 이전 대상지 지원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광주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 정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거나, 이전 대상 지자체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인책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도와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해 무안군 등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7개 국가하천 321개 배수문 대상

전남지역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을 주민이 수동으로 여닫던 방식에서 상황실 모니터링을 보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남도는 13일 “국가하천 배수문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노후 기반시설 디지털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전국 국가하천 88개소 3275km에 설치된 배수문 3580개소에 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도내 12개 시·군 7개 국가하천(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보성강, 지석천, 고막원천, 함평천) 327km에 설치된

배수문 3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전액 국비로 총 사업비 35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비로는 118억 원이 확보됐다.

사업은 주로 수문보수, 전동식관양기 등 노후수문 개량을 비롯해 수위계, 현장제어반, CCTV, 통신시설, 종합상황실 등 디지털 설비 구축 등이 이뤄진다. 최신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수위계 센서와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문을 자동 조작할 수 있게 돼 홍수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 이뤄진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DJ 서거 11주기가카이브 기록전

1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평화주간 선포식’에서 시민들이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아카이브 기록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1호 마을기업 상생샵, 광주 홈플러스에 입점

광주시-홈플러스 상생협약 체결 계림점에 이달 말 개장 예정

광주지역 마을기업 전용 판매장인 ‘상생샵’이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다. 제품 판

로 확대 및 마을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광주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신진호 홈플러스㈜ 상무는 1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마을기업 상생샵(샵) 조성·운영’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에 홈플러스는 상생협약을 통

해 지역 마을기업의 판로확대 및 성장·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국내1호 마을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인 ‘상생샵(샵) 조성 및 운영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마을기업 상생샵은 지역 홈플러스 매장 내에 마을기업 소규모 판매장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광주시에 강원도 등

2곳을 선정했다.

상생샵은 착한소비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높인다(샵)는 뜻과 가게(shop)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

광주시에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 마을기업 상생샵을 조성해 이달말 오픈할 예정이다. 조성 사업비로 행정부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사비 5000만원 등 총 1억 원이 지원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2단계 시민공공일자리사업 추가 모집

생활방역분야 등 5개 사업 321명 19일까지 접수...저소득층 우선

광주시에 2단계 시민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 방역망 구축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지하철 터미널, 공공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분야는 대중교통 시설방역단 250명, 도시철도 생활방역 41명, 여과 터미널 열감지기 운영 16명,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방역 14명 등 총 321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4일) 기준 만 18

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시민으로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하다.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 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폐업한 경력 등이 있으면 우선 선발한다. 근로시간은 주 15-25시간(1일 3-5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적용한다.

참여신청은 14일부터 19일까지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선발된 인력은 9월8일 발표하며, 11일부터 사업에 투입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